

# 익산 제3산단 분양률 마(魔)의 50% 돌파

## 시, "지역경제 청신호"… 제4산업단지 분양률 76% 육박 하반기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중소기업 투자 기대

익산시가 올 상반기 동안 제3,4일산 산업단지에 10개사 16만8천㎡, 2,127억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9개사와 11만7천㎡의 분양계약을 체결 2,088억원의 투자와 590여명의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주일 문화산업국장은 19일 "그동안 익산시가 기업유치만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발로 뛴 결과"라며 "특히 지난 6월 1일 경인은행과 2인명 규모의 분양계약 체결로 제3산단 분양률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마(魔)의 50% 돌파, 현재 54.4%를 기록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산단 분양률은 지난 6월 11일 아람푸드와의 분양계약 체결로 75.9%를 넘어서 제3, 4산단 전체 분양률은 58.2%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제3산단의 경우 N사에서 33,400여평에 1,200여억원을 투자하고 약 200여명을 신규고용 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조만간 62%의 분양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M사, 무기화학업체인 N사, 금속용기 제작 업체인 D사, 의투기업인 F사 등에도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70%대 분양률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문화산업국장은 19일 "그동안 익산시가 기업유치만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발로 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제4산단의 경우에도 아앤코리아, 유엘, 골든코리아 등 기존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투자유망기업의 계약을 무리함으로서 분양률 100%에 도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활용한 지역 연구기업 유치와 지방이전 계획 중인 수도권 타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익산시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으나 자금확보 등 재변절차 진행중에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은 "타기 기업유치에 자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축 등 각종 인허가 및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민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인이 감동하여 가맹처 등 관련 업체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분업요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 내달 4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리마켓 운영자 모집

군산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간여행마을과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프리마켓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는 프리마켓 운영자는 군산시 민이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에서는 3m(가로)X3m(세로)의 물품 판매부스와 탁자 및 의자 판매 현수막 등을 제공해 축제 기간 동안 각자의 개성 있는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프리마켓 운영 장소는 군산시 중앙로 일대 차 없는 거리이며(이상당에서 해마길 방향 280m), 분야는 수예, 도자기, 목공, 파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이다.

프리마켓 참가희망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festival.gunsan.gov.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시 관광진흥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에서 등록(접수)하면 된다.

개인 창작품 및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품목과 시간여행축제 취지에 맞는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 이를 축제 기간 동안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간여행화페'로 발행해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올해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시민이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이 담긴 상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축제 참여를 높이고 지역발전의 장으로 한 단계 나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프리마켓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festival.gunsan.gov.kr) 또는 군산시 관광진흥과 ☎454-330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금강여행 이벤트 진행

익산시가 대전광역시, 공주시, 부여군과 함께 주요 관광지 무료 공공WiFi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금강역사여행 아이큐 알아보기 이벤트를 오는 24일까지 익산시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위대한 금강역사여행 홈페이지(www.welcomebackjicakcr)의 금강역사여행 아이큐 알아보기 배너를 클릭 한 후 퀴즈를 풀 후 금강역사여행 아이큐 점수를 캡처해서 익산시 공주시, 대전시, 부여시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올려 주면 된다.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유명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익산시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ssanin)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며 단, 이벤트 기한인 24일까지 캡처한 화면을 댓글로 게시해야 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의회, 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 22일까지... 추경예산안 · 의안건 심의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온 제7대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 마지막 회기인 제209회 1차 정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의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통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9,994억5천5백만원 보다 210억 7500(2.1%)만원이 증액된 1조205억 3천만원으로 20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한국GM사태 등으로 야기된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신속한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신경용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민원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의 약속, 지역개발 사업 발굴 추진 등 동분서주했던 지난날들이 소중했으며 후회 없는 의정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지역주민들은 대한민국 내에 군산이 있는지 분노하고 있다"며 "제기동을 위한 투자유치 전담팀 구성 및 새로운 지원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의장은 "4년간 2명의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임속한 선서와 함께 지방자치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던 것이 눈에 선하다"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7월 개원한 제7대 군산시의회는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가교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25일부터 장애인 신체활동마당 회원모집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센터장 소경섭)는 관내 등록장애인(1급~6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운동 신체활동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회원을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신규회원 우선순위로 선정)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체활동마당은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전문 치료사의 지도로 능동적 재활운동과 1대1 작업치료, 균형각각측정(Biorescue), 기초건강측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마당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활운동 습득 및 운동 습관을 형성

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7월2일~12월31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을 원하는 분은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인화동 소재) 1층 신체활동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등록신청 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유형주점 방화사고 수습에 행정력 집중

### 내달 9일부터 화재 취약시설 특별조사 추진 안전사고 예방

군산시가 지난 17일 밤 방화에 의해 발생한 화재사고 대응분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오전 부시장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습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화사고 대응분부를 구성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방화사고 대응분부는 상황관리반, 인력지원반, 유가족 및 장애지원반, 환자관리 및 심리지원반으로 구성했으며 서울 종로구 여관 방화사건 수습 사례를 참고해 수습을 위한 인력 지원, 환자와 유가족 불편사항 처리 및 심리치료 등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지역주민인 만큼 유가족에 대한 소문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며 향후 7월 9일부터는 관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행복콜택시 호응

익산시가 추진 중인 행복콜택시가 지난 3월 운행개시 후 금마면 등 8개 읍면동 29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콜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마을에 택시를 배차 주민들은 500원만 내면 읍면동 소재지가 이동할 수 있으며 행복콜택시 운전자들은 월정액을 지원 받아 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앞으로 행복콜택시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복지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콜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월평균 687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로 이용시민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발빠르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7월중이후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복콜택시 이용마를 선정기준은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또는 버스정류장 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